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사야 53:1-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처음으로 한 것은 스물두 살 때였습니다. 저는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해 생존 확률이 10퍼센트에 불과했지만, 기적적으로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육십 대가 된 지금은 제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열두 살 때 신앙고백을 했으며 그 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이면 고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도,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차례의 수술과 신체적 질병으로 점철된 제 삶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제게서 멀리 떠나셨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외과의사들이 마지막 순간에 생각을 바꾸었을 때, 치료 계획이 달라졌을 때, 엑스레이에 나타난 것과는 극적으로 다른 수술 결과가 나왔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기도와 격려의 말로 지지해준 친구들과 가족들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내 그곳에 계셨습니다.

딘 개먼스(미국 노스캐롤라이나)

- **기도** 하늘 아버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억압과 탄압 속에 있는 이들, 몸과 영혼이 아픈 이들을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오늘의 묵상**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게 할 것이다.
- **기도 포커스** 외과의사들을 위하여

GOD, WHERE ARE YOU?

READ Isaiah 53:1-5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 Isaiah 53:5 (KJV)

“God, where are you?” I was 22 when I first asked this question. A horrific car crash had left me with a ten percent chance of survival, yet miraculously I am still here. Now in my sixties, I am finding it easier to see God’s work in my life.

I grew up in a Christian household, made a profession of faith at age 12, and have been a Christian since. When I was young, I mistakenly believed that being Christian should give me protection from suffering. But this is simply not true. It was not true for Christ, nor is it true for his followers.

Looking at my life that has included multiple surgeries and physical maladies, an onlooker might mistakenly assume that God was far removed from me. But that would be a mistake. I saw God’s hand at work when surgeons changed their minds at the last minute, when treatment plans were altered, and when surgery revealed results dramatically different from x-rays. God was present in the support of friends and family who prayed and offered words of encouragement. God was there all along.

THOUGHT FOR THE DAY

I will not let my circumstances define my relationship with God.

Prayer: Heavenly Father, hear our cry. We pray that you will surround the oppressed, the downtrodden, and those sick in body and spirit with your comfort and your love. Amen.

Dean Gammons (North Carolina, USA)

Prayer Focus: SURGEONS